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□ 행복청, 국내최초 'LNG+수소' 혼소가능한친환경발전소건립,(2024.11.07) - 행복청은 신세종복합발전소의 준공을 통해 2030년까지 50만 인구에 전기와 난방열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집단에너지시설을 보유 - 신세종복합발전소는 LNG와 수소를 최대 50% 혼합하여 운영 가능하며, 3년간의 공사 후 2024년 11월에 준공 행사 예정 - 수소 혼소 발전소는 CO₂ 배출량을 LNG 발전 대비 17% 이상 감축하며, 에너지 효율을 두 배 가까이 증가 - 행복도시는 청정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며, 에너지 공급 인프라 관리 강화 계획
		□ 학교·병원 근처에도 수소충전소...정부, 충전소 이격 거리 전격 완화(2024.11.10) - 정부는 학교, 병원 등 1·2종 보호시설 인근 수소충전소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충전소 설치 가능 범위 확대 -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기존 이격 거리 제한을 받지 않으며, 도로변 충전소 설치 가능 -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검증 완료 시 이격 거리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, 수소차 보급 촉진 목적 - 업계는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를 통해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,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개선 필요성 강조
	지방	□ 세종행복도시수소로그린미래연다(2024.11.07) -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신세종복합발전소의 준공을 통해 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공급 강화 - 발전소는 LNG와 수소를 최대 50% 혼합하여 운영 가능하며, 597MW 전력과 340Gcal 시간당 열에너지 생산 -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을 두 배 가까이 높이고, CO₂ 배출량을 석탄화력 대비 44% 감축 - 보령시와 협력하여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며,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계획 □ "수소도시삼척도약"(2024.11.07) -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일원이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어 2000억원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투자와 2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-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며,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의 활성화 추진 - 삼척시는 수소 R&D 특화도시로서,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수소저장·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- 지역사회는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삼척시의 노력을 환영하며,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기대
		□ 동해신항'수소항'으로(2024.11.07) - 동해시는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되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균형 발전 기대 - 특구 내 7개 기업이 206억원 투자하여 수소 저장, 운송, 에너지 부품 분야 육성 및 안정성 시험센터 설립 예정 - 액화수소 산업규제 자유특구와 수소저장·운송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- 지역사회는 수소항으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동해시의 노력을 환영하며, 수소산업 활성화 기대
		□ 세종시 국내 첫 'LNG+수소 발전소' 준공(2024.11.07) - 세종시 누리동에 위치한 신세종복합발전소가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24년 11월 준공 예정 - 발전소는 LNG와 수소를 최대 50% 혼합하여 운영 가능하며, 전기 597MW와 열에너지 340Gcal 시간당 생산 - CO₂ 배출량을 LNG 발전 대비 17% 이상 감축하며, 에너지 효율을 83.5%로 국내 복합화력 발전 중 최고 수준 - 남부발전은 AI 기반 환경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세종복합발전소를 세계 모범 '클린 플랜트'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
		□ 충남도, 수소·바이오 등 기회발전특구 5곳 지정(2024.11.07) - 충남도는 보령, 서산, 논산, 부여, 예산 등 5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, 총 142만 평 규모로 기업 이전 및 투자 촉진 -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, 취득세,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 -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SK E&S, SK 인천석유화학, 셀트리온 등이 있으며, 총 투자 규모는 4조 8,401억원으로 2,303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- 충남도는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및 정주·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완주군, 수소산업육성으로 '국제수소도시' 도약 꿈꾼다(2024.11.07) 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수소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- 완주군은 '수소의 날'을 기념하여 수소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, 2030년까지 기업 유치, 매출 증가, 고용 창출 목표 설정 - 수소산업 추진 전략으로 수소 모빌리티 및 부품 산업 육성, 수소산업 인증도시 고도화,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추진 - 완주군은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에 포상과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발표 □ 구미시, 경북 1호 액화수소충전소개소… 일 120대 수소버스 충전 가능(2024.11.07) - 경북구미시는 경북도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인 선기동수소충전소개소를 개소하여 수소버스 120대 충전 가능 - 충전소는 SK플러그하이버스가 20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구축 - 액화수소는 대용량 저장·이송이 가능하여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,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 이용 지원 - 구미시는 수소버스 31대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, 추가 충전소 설치 계획 발표 □ 수소의 날을 기념 완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식 개최(2024.11.07) - 완주군은 수소의 날을 기념하여 수소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대화의장 마련 및 2030년 비전 선포 - 비전은 2030년까지 기업 유치 100개, 누적 매출 30조원, 고용 창출 1만명 목표 설정 - 수소산업 추진 전략으로 수소 모빌리티 및 부품 산업 육성, 수소 산업 인증도시 고도화,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유도 - 완주군은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에 포상과 감사패 전달, 수소산업 육성 비전 발표 □ 울산국제수소에너지포럼 개최…국내외 협력 방안 모색(2024.11.08) - 울산시는 국내외 수소산업 발전 전망을 주제로 제4회 2024 울산국제수소에너지포럼 개최 - 행사에는 한국수소산업협회, 한국화학연구원 등 수소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, 전문가 150여 명 참석 -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등 외국 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여 국제 협력 방안 논의 - 포럼에서는 청정수소 기술 동향 및 정책 공유, 글로벌 R&D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동해시, 「기회발전특구」 지정으로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 기대(2024.11.08) - 동해시는 기회발전특구로 북평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수소·저탄소 녹색산업 활성화 - 특구 내 7개 기업이 206억원 투자와 93명의 고용 유발 계획, 수소 및 저탄소 산업 관련 기업들의 조기 투자 유도 -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소득세, 법인세 등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제공, 지역 균형 발전 및 수소산업 중심도시 도약 - 동해시는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과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, 추가 특구 지정 계획
		□ 울진군, 대규모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기지 조성 사업 추진 본격화(2024.11.08) - 울진군은 LH 주관으로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를 착수,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산업클러스터 허브 계획 - 152만㎡ 부지에 3,871억원 투자, 원전 연계 수소 대량 생산기지 구축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안보 확립 -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수립 완료 및 정식 산단 승인 신청, 조기 착공 추진 계획 - 울진군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 목표
		□ 보령시,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도시 건설 성큼(2024.11.09) - 보령시는 대형 공모사업 선정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도시 건설에 박차 - ‘이산화탄소포집·활용 초대형사업(CCU 메가프로젝트)’ 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선정, 총 1,500억원 규모 추진 - 기회발전특구로 보령시 고정국가산업단지 및 냉열특화산업단지 지정, 13조원 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- 보령시는 수소배관 추가 설치, 수소 연료 산업 확장,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소도시로의 전환 계획 발표
		□ 전북자치도,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에 따라 대형 과제 대응력 높인다(2024.11.10) -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집중 -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완주군을 재도전 대상으로 선정, 내년 경제성 보완 및 연계산업 전략 구체화 계획 -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타사업 확보 및 수소모빌리티 중심 기획 추진 - 전북자치도는 인프라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하고,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목표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UAM	중앙	- (해당 없음)
	지방	□ 부산로봇·대구UAM·광주첨단차...5대광역시'도심융합특구' 지정(2024.11.07) -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완료. 첨단산업 육성 목표 설정 - 도심융합특구는 산업, 주거,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.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인 인프라 구축 모델 채택 - 주요 지원 사항: 도시·건축 규제 완화, 국·공유지 사용료 감면,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제공. 기업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-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도심 내 기업 밀집 구역 세제 지원 강화. 청년 종사자 주거 지원 및 맞춤형 주거 지원 계획 발표
		□ 철도에서크루즈, UAM까지...충남교통혁명초읽기(2024.11.07) - 충남지역 교통지도 변화 가속화, 철도, 고속도로, 항공기반시설 조성 추진. 교통혁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-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당진 등 지역 연결 강화,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 - 대산당진고속도로 공사 착수, 2030년 개통 목표 설정. 해안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물류 효율성 증대 기대 - 서산대산항에서 국내 최초 국제 크루즈 출항, 노선 확장 추진. 도심항공교통(UAM) 시험평가센터 및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예정
우주	지방	□ '판교~광화문15분' 서울도심항공시대연다...내년한강서UAM실증(2024.11.11) - 서울시, 2030년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 목표 설정. 한강 중심으로 내년 실증사업 추진 - UAM 실증사업: 2025년 상반기 킨텍스-김포공항-여의도-잠실-수서 구간 실증 예정. 기체 및 운항 관제 시스템 검증 - 초기 상용화 단계: 여의도 기점으로 비즈니스, 관광, 의료용 노선 시범 운영 계획. 판교광화문 25km 구간 15분, 잠실인천공항 25분 이동 가능 전망 - 경제 효과: 이동시간 절감으로 연간 약 2조 2,000억 원,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약 4조 원 확대 기대, 통합모빌리티서비스(MaaS) 도입 계획
	중앙	- (해당 없음)
	지방	□ ·고양시, 고양우주항공과학고유치응원행사개최(2024.11.13) - 고양시는 11일, 고양우주항공과학고 유치 응원 행사를 개최. 한국항공대와 교육청이 참여해 우주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의지 표명 -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은 “창의적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화 교육기관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이 될 것“이라 언급. 교육지원청은 첨단 실습 교육 제공 예정 - 고양교육지원청은 최신 기술과 현장 학습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제안.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 확대 계획 - 고양시는 유치 성공 시, 지역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
		□ 박동식사천시장, 우주항공복합도시법안촉구(2024.11.13) - 박동식 사천시장은 국회에서 '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'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 - 특별법에는 정부 추진단 구성, 예타 면제 등 다양한 사항 포함. 세계적 우주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 목표 설정 -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산업, 행정, 주거가 통합된 복합형 도시로, 지역 발전과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 - 박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, 사천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
		□ 경남도지사주요사업국비지원 ·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입법요청(2024.11.13) -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요청 -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며,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 - 경남도는 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'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단'을 설치하고, 연계사업 발굴에 착수할 예정 - 국회 예산 심의에서 주요 역점 사업 반영을 요청하며, 지역 산업 고도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
		□ ‘고흥우주항공배한국대회’ D-1 ‘뜨거운열기’ (2024.11.12) - 고흥군은 13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'제2회 고흥 우주항공배 궁대회'를 개최. 참가 신청자가 2천 명에 달해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 - 올해 대회는 고령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. 1,500명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 예정 - 한궁은 전통 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한 스포츠로, 노인들의 신체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경기로 평가받음 - 대회 기간 중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,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버스를 대절. 식전 행사와 풍성한 상품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
		□ 전석훈경기도의원, 우주항공산업육성'지지부진' 지적(2024.11.12)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,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- 경상남도는 이미 2020년 우주항공산업과를 설치해 운영 중임에도, 경기도는 관련 부서 설치와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 - 전 의원은 자율주행 사업의 진척 부족도 지적하며, 기술 발전을 위한 법규 개정과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- 이에 대해 경기도는 R&D 조사와 사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, 전 의원은 실태 조사가 핑계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
		□ “사천우주항공철도는사천의미래세대100년을위한초석이될것” (2024.11.08) - 국회 토론회에서 사천 우주항공철도의 필요성이 논의되며, 진주우주항공청삼천포항을 연결하는 노선 제안 - 철도 건설은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여객·물류 수송 원활화를 목표로 함 -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철도 건설을 재건의한 상태로, 2025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 - 박동식 사천시장은 철도 건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,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요청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환경오염 줄이고 수소까지만드는 '폐태양광 재자원화' 기술 개발(2024.11.07) -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폐태양광 모듈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및 유가금속과 수소 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 -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에서 폐태양광 모듈을 절삭하여 실리콘을 액상으로 추출하는 새로운 공정 개발 - 기존 방식의 매연과 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을 현저히 줄이고, 고체 상태의 봉지재와 유가금속을 추출 가능 - 염기성 용액과 실리콘 반응으로 수소 가스 발생 확인, 차세대 청정수소 제작을 위한 핵심 기초 기술 확보 전망
	지방기관	□ 충남테크노파크, 수소에너지 국제 R&D 세미나 개최(2024.11.08) - 충남테크노파크는 예산군 소재 스포라스리솜에서 수소에너지 국제 R&D 세미나 개최 예정 -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, 충남도, 예산군 주최로 수소에너지 산업의 정책 및 기술 정보 공유 목적 - 국외 발표자로 스페인 아라곤수소재단, 네덜란드 New Energy Coalition 등 참여, 글로벌 R&D 협업 방안 논의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국내 발표자로는 충남TP, 한국중부발전 등 수소에너지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 교류
UAM	국가기관	- 해당 없음
	지방기관	□ 세종도시교통공사-세한대, UAM시대의출발점에서다(2024.11.12) - 세종도시교통공사, 세한대학교와 UAM 미래항공교통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- 공동과제 추진, 혁신적 미래 이동수단 선도 목표 설정. 항공·교통·UAM 주요 사업 활성화 협력 - 교육 및 인력 교류, 항공 및 교통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사업개발 협력 계획 -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협력, 종합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 구축 목표
우주	국가기관	□ 한미공동개발 ‘태양코로나그래프’ , 국제우주정거장설치완료(2024.11.13) - 한국천문연구원과 NASA가 공동 개발한 태양코로나그래프(CODEX)가 국제 우주정거장(ISS)에 성공적으로 설치 완료 - CODEX는 태양의 상층 대기인 코로나를 집중 연구해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메커니즘 규명 예정 - 관측 데이터는 NASA 지상국에서 수신되며, 분석은 NASA와 천문연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 - 연구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태양 관측을 시작하며, 최대 2년간 데이터를 수집해 태양 연구의 난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
		□ 우주청, 항우연·천문연과정부박람회참가...‘전문가중심모델’ 소개(2024.11.12) -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‘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’에 참가해 ‘전문가 중심 모델’을 소개 - 우주항공청의 임무 본부는 정부 부처 평균 전문가 비율의 80% 이상을 차지해, 전문성 높은 혁신적인 정부 모델을 구축 - 박람회에서는 다누리 달 탐사선 관제 시스템, 누리호 모형, 천체 사진 등을 전시하며, 우주 개발 성과를 소개 -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개청 후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
		□ KAI,국가생산성대회대통령표창수상... “항공우주발전건인” (2024.11.08) 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,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- KAI는 ‘글로벌 KAI 2050’ 비전 수립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마련 -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, 올해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.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KAI는 한국형 전투기 KF-21, 소형 무장헬기(LAH) 등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, 수출 확대 계획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□ 어프로티움'WAVE 2024'서청정수소청사진제시(2024.11.07) - 어프로티움은 울산에서 열리는 'WAVE 2024'에 참가하여 청정수소 생산, 유통, 탄소포집 및 활용 기술 전시 - 부스를 통해 미래전략프로젝트와 청정수소 사업의 밸류체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- 디지털미디어와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수소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마련 - 어프로티움은 울산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 성장 기여
		□ 첫'청정수소입찰', SK·한화·두산등검토...일부는'관망세'(2024.11.07) - SK, 한화, 두산 등 수소사업 계열사들이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 참여 여부를 최종 검토 -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입찰의 낙찰 대상자는 발전단가, 인프라 안정성 등 종합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 - 일부 에너지기업들은 높은 청정수소 가격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입찰 참여를 보류하는 경향 - 청정수소 발전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만으로는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 핵심 역할 기대
		□ 에어레인, 이오노머 재생 기술 공개...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(2024.11.07) - 에어레인은 독일 함부르크 MESSE에서 열린 Hydrogen EXPO에 참가하여 수전해용 이오노머 리사이클링 사업과 제품을 처음 공개 - 이오노머와 PGM 리사이클링 솔루션, 사업화 일정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샘플 납품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 논의 - 글로벌 연료전지 제조업체 및 수전해 MEA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술력 인정 받음 - 에어레인은 2025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및 수전해 MEA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양산 설비 가동 계획 발표
		□ SK E&S·발전공기업 청정수소 발전사업자 입찰 출사표(2024.11.07) - SK 이노베이션E&S,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3사가 청정수소 발전사업자 입찰에 참여 예정 -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우선 협상 대상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자 발표 예정 - 청정수소발전은 석탄 및 LNG 발전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역할 기대 - 발전사업자는 2027~2028년부터 15년간 고정 가격으로 청정수소 발전 전력 판매 예정
		□ 범한퓨얼셀, 중국 우한퓨처에너지와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(2024.11.07) - 범한퓨얼셀은 중국 우한퓨처에너지와 MOU를 체결하여 우한시에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- 협력 대상은 신저우 G230 창부도 휴게소 종합에너지 센터 등 3곳으로,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 - 수소충전소는 기존 주유소 및 전기충전소와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모델로 지역 에너지 수요 충족 기여 - 중국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범한퓨얼셀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수소충전소 확장 계획
		□ 신차 출시로 시장 분위기 바뀔까...현대차 수소차 '이니시움' 향한 기대와 우려 (2024.11.07) - 현대자동차는 7년 만에 수소차 후속 모델 '이니시움'을 공개, 수소차 시장 선점 의지 재확인 - 수소차 시장은 인프라 부족, 신차 부재, 높은 비용 등으로 글로벌 및 국내에서 부진한 상황 지속 - 정부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, 내년 신차 출시와 함께 수소차 보급 목표 대폭 증가 예정 - 현대차는 수소모빌리티 및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기술 협력 추진, 수소차 시장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 모색
		□ 호그린에어, '빅스포2024' 참가...고효율 수소연료전지 드론 선보여(2024.11.08) - 호그린에어는 광주에서 열린 '빅스포2024'에 참가하여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선보임 - 수소드론은 기존 리튬배터리 기반 드론과 달리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장시간 비행 및 짧은 충전 시간 가능 - 드론은 배출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탄소배출 감소 및 높은 에너지 밀도 제공, 환경 친화적 - 호그린에어는 수소기반 기술을 통해 미래형 에너지 생태계 선도 계획 발표, 다양한 산업 분야 응용 가능성 강조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올해도 어려운 수소차 시장...내년 '넥쏘2' 구원투수될까(2024.11.07) - 올해 수소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정부 목표치의 30%에 불과하여 수소차 보급이 부진 - 내년 현대차의 넥쏘 후속 모델 '이니시움' 출시와 수소차 지원 예산 대폭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증가로 시장 반등 기대 - 수소차 시장 부진 원인으로는 충전 인프라 부족, 신차 부재, 높은 비용 등이 지적 -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660곳 구축 계획 발표, 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
		□ 포스코포항제철소 화재, 3파이넥스 공장 당분간 가동 어려움...수소환원제철 전환 서둘러야(2024.11.10) - 포스코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화재 발생, 가동 당분간 어려움 예상 - 화재로 인해 수소환원제철 전환 필요성 제기, 수소 기반 제철공법 '하이렉스' 개발 가속화 요구 -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,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-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 및 설비 이상 여부 확인, 수소환원제철 전환 계획 지속 추진 필요
		□ '꿈의 연료' 청정수소입찰시장, 발전공기업 위주 낙찰 불가피(2024.11.11) - 세계 최초 청정수소입찰시장에서 발전공기업들이 대부분의 발전물량을 낙찰 받을 전망 - 수소혼소 발전의 기술적 장벽과 가격 리스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, 대부분 발전공기업 위주 낙찰 예상 - 청정수소발전은 탄소 배출 없는 수소를 연료로 활용, 발전단가와 환경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- 청정수소발전사업은 수소경제 전환의 핵심 역할 기대, 발전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필요성 강조
UAM	민간기업	□ UAM 기체 확보 난항...수도권 실증 내년으로 가닥(2024.11.10) - 도심항공교통(UAM) 수도권 실증 2단계 지연, 기체 확보 어려움 발생. 내년 말 상용화 목표 차질 우려 - SKT 주축 'K-UAM 드림팀', 실증 1단계 참여 예정. 조비에이션 기체 공급 지연으로 실증 일정 연기 - 실증 1단계: 기체 안전성, 통합운용성, 소음 측정,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검증 - 현대자동차, KT 등 'K-UAM 원팀'은 기체 확보 어려움으로 2단계 참여 불가. 국토교통부, UAM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 진행
		□ TS정용식"배터리 · UAM등모든교통불안해소하겠다"(2024.11.11) - TS 정용식 신임 이사장,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 목표 발표. 배터리, UAM 등 첨단 교통 분야 안전 관리 강화 계획 - 자율차, 전기차 SDV 도입에 따른 첨단 안전장치 관리 방안 마련. 배터리 화재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위변조 등 신기술 관련 위험 대응 계획 - 드론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, 사고 및 보험 정보 공유 체계 마련. 종합 안전관리체계 강화 목표 설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UAM 법령 정비 및 상용화 기반 조성, 실증·시범사업 활성화 추진.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정립 및 기술 개발 인프라 제공 계획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선박·UAM·로봇...배터리는'미래산업의쌀'(2024.11.10) - 리튬이온배터리 활용 범위 확대, ESS, 선박, 항공, 철도, UAM 등 다양한 분야 진출하며, 배터리 수요 급증 - ESS 시장 성장, 글로벌 배터리 생산량의 20% 이상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.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 등 주요 기업 수주 확대 - 선박, 항공, 철도, 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에 배터리 적용 확대 예상. 전고체배터리, 리튬황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대형선박, 민항기 적용 가능성 존재 - UAM, 드론 등 모빌리티 시장에서 고성능 배터리 필요성 증가.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가 미래 성장시장의 주도권 결정 요인
우주	민간기업	□ LG에너지솔루션, 스페이스X 우주선에배터리공급(2024.11.10) -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왕복선 '스타십'에 맞춤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 - 스페이스X는 자체 생산 배터리를 사용해왔으나, 발사 횟수 증가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채택 결정 - LG는 이미 2016년 NASA의 우주복용 배터리를 공급한 경험이 있으며, 이번 계약으로 우주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장 - 이번 배터리 공급으로 LG는 스페이스X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,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기여할 계획
	대학교	□ 경상국립대-부산국세청, '우주항공분야협력' (2024.11.07) - 경상국립대학교와 부산지방국세청은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 - 양 기관은 우주항공 첨단 소재 개발과 민·관·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계획 - 첨단 기술 개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계획 -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추진 예정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태양코로나그래프, 우주정거장에안착 . . . 최대2년간태양관측(2024.11.13) - NASA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코로나그래프(CODEX)가 국제우주정거장(ISS)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관측 임무를 시작할 예정. - CODEX는 태양의 코로나를 집중 연구해 태양풍 가속 과정과 코로나 가열 현상을 규명할 계획. 데이터는 NASA 지상국에서 수신 예정. - 설치 후 약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최대 2년간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할 예정. 관측 계획은 NASA와 천문연이 공동 수립. - 연구팀은 관측 데이터를 통해 태양 연구의 난제를 해결하고, 향후 우주 기상 예측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방침.
		□ 김종훈"배터리, ESS용으로공급전략수정...항공기·우주발사체구입검토를" [트럼프2.0시대](2024.11.10) -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용에서 에너지저장장치(ESS)용 공급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-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흑자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, 항공기와 우주발사체 구매 목록 정리도 권장 - 김 전 본부장은 소형모듈원전(SMR) 기술에서 미국과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-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우선 정책이 한국 배터리 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
		□ 과학계 ‘머스크월드’ 펼쳐지나... 우주산업·원자력 뜬다(2024.11.07) -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화되며, 화성 탐사 및 우주산업 규제 완화 기대 - 스페이스X는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거대 발사체 ‘스타십’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, 규제 완화로 일정 가속화 가능성 존재 - ‘스타링크’ 위성통신 사업도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, 발사장 추가 건설과 규제 완화 전망 -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한국의 소형모듈원전(SMR) 수출 협력 기회도 예상

-끝-